발간자료

• **조선 Weekly:** 신조선가지수 2주만에 185P로 상승. LNG 소식: HD현대삼호, BW LNG로부터 LNG선(3개 화물창) 2척 수주. 신조선가 254백만달러. HD현대중공업, Hayfin Capital Management로부터 LNG선 2척 수주, 250.5백만달러. 한화오션, 유럽 선사로부터 LNG선 1척 수주, 신조선가 250.3백만달러. 삼성중공업, TMS Cardiff Gas로부터 LNG선 2척 추가 수주. 가스선: HD현대중공업, George Economou-TMS Cardiff로부터 VLGC 2척 수주. 컨테이너선: HD현대중공업, ONE 컨테이너선 6척 수주. 탱커: 한화오션, 팬오션 VLCC 4척 수주. 신조선가 131백만달러
(조선/기계/방산 최광식)

• **ESG 및 2차전지 산업:** WTI 유가가 $100/bbl에 달하는 구간이 지속되면서, 전기차 시장 반등을 유도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Ford의 LFP 배터리 양산 계획은 자동차 OEM이 ESS 시장에 직접 진입하는 이례적 사례. 소재 업체가 현재의 환경에서 더 높은 영업레버리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에코프로비엠 및 엘앤에프 적극 비중확대 전략을 추천
(자동차/이차전지 유지웅)

• **보험(Overweight):** 1Q26 실적은 대체로 컨센서스 상회. 손해보험업은 보험손익에서, 생명보험업은 투자손익에서 실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변수 존재. 주목했던 점은 성장성 근거. 성장성 접근은 다만 아직 시기상조. CSM과 손익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주주환원 여력은 확대 중. 금리 상승과 지분가치 상승에 순자산 증가 확인. 업종 투자논리로 주주환원 기대감 유효. 그 외 손익변동성 축소 확인 시 종목 선정
(금융 김지원)

• **LG이노텍_BUY/95만원:** FC-BGA 후발주자 할인이 축소되어야 할 시점. 고객사들의 FC-BGA 추가 공급 요청과 투자 지원 논의 활발 → 후발주자임에도 공급 부족 구간에서 전략적 벤더로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 현재 FC-BGA 가동률은 낮지만 그만큼 글로벌 경쟁사 대비 캐파 대응 여력이 있는 상황. 고객사 LTA 또는 투자 지원이 확정될 경우, FC-BGA 사업의 성장 속도와 수익성 개선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음. 27년 전사 영업이익 추정치 1.4조원으로 직전 대비 +9% 상향 / 패키지솔루션 영업이익 추정치 3,829억원으로 직전 대비 30% 상향 조정 → 전사 내 이익 비중은 27년 27%까지 상승
(전기전자 김연미)

• **기가비스/17.5만원:** 투자의견 BUY, 적정주가 17.5만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27년 매출액 1,799억원, 영업이익 778억원, OPM 43% 전망. 전기전자 중소형주 최선호주로 제시. 1분기는 일부 매출 인식 지연으로 부진. 2분기 매출 반영을 시작으로 하반기 신규 수주와 출하가 맞물리며 QoQ 계단식 성장이 가능할 전망. 특히 호황기에는 고객사 투자 방향성이 명확해 장비 선제 제작 가능 → 리드타임 단축 효과가 반영되는 2H26부터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주요 고객사 CapEx 집행 기조는 고객사별 팹 투자 계획, LOI 수령, 긴급 발주 코멘트 등으로 장비 수요가 구체화되는 중. 고객사 간 경쟁 심화도 장비 발주를 앞당기는 요인

(전기전자 김연미)

• **세아제강_BUY/19만원:** 1Q26 영업이익 241억원으로 컨센서스 상회. 신안우이 프로젝트와 미주향 송유관 수요가 판매량·수출 수익성 개선 견인. 2Q26도 신안우이 공급 지속과 대미 수출 회복으로 견조한 판매량 예상. 수출은 가격 경쟁력 회복한 상황으로 향후 지속적인 수출량 증대와 수익성 확보 가능. 고유가 지속 시 북미 시추 확대에 따른 유정관·송유관 수요 증가도 기대

(철강 이정우)

• **농심_BUY/50만원:** 1Q26 연결 매출액 9,340억원, 영업이익 674억원, 영업이익 기준 시장 기대치 소폭 상회. 주가 반등 트리거는 미국 법인 판매량 YoY 반등. 미국 판매량 4Q25 YoY -0.5%, 1Q26 YoY -3% 기록했으나, 미국 신라면 총매출액은 신제품 입점 확대, 프로모션 효과로 YoY +30%, +20% 증가. 신라면의 판매 기여도 확대 기대. 25.05 유럽, 26.06 러시아 판매법인 설립으로 주요국 침투 가속화, 26.10월 녹산 수출 공장 가동 후 유럽 법인 외형 성장 가속화가 하반기 투자포인트로 부각될 전망

(음식료 이다연)

• **오리온홀딩스_Not rated:** 1Q26 연결 매출액 1조 86억원, 영업이익 1,729억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 실적 기록. 오리온홀딩스의 26년 연간 매출액은 3조 7,706억원(YoY +11.1%) 전망. 주요 자회사 실적 기여 확대, 25년 로열티 수수료율 상향, 오리온 배당 우상향 기조를 감안하면 두 자릿수 외형 성장 가능하다고 판단. 쇼박스 역시 1분기 이후 '왕과 사는 남자' 2차 판권 매출 발생 기대. 연내 기보유 자사주 소각(약 4%)과 중간배당 검토 예정, 전년 대비 DPS 300원(+27.2%) 증가 시 현재 주가 기준 배당수익률 5% 수준으로 배당 매력도 유효

(음식료 이다연)

• **한스바이오메드_Not rated:** 28기 2분기 매출액 345억원(YoY +43%), 영업이익 44억원(YoY +151%)으로 컨센서스 상회. 피부이식 매출액 154억원 기록, 셀르디엠은 1~3월 월 매출 각각 12억원, 12억원, 18억원 기록하며 분기 매출 42억원 달성. 식약처 인체조직이식재 광고 규제 강화 추세이나 국내 MS 1위 업체와의 파트너십 기반 매출 확대 가능 판단

(의료기기/화장품 박종현)

• **리브스메드_BUY/12만원:** 1Q26 매출액 103억원(QoQ -38.2%), 영업적자 84억원(QoQ 적자 지속)으로 당사 추정치 하회. 주력 제품인 아티센셜 매출 감소 영향 반영, 1분기 의료기기 비수기 영향으로 QoQ 매출 감소 불가피. 복강경 수술 기구보다 복강경 수술 로봇 출시 중심 전략 반영하며 추정치 조정. Stark 2026년말 식약처 품목 허가 목표, 2026.05월부터 동물 임상 진행 예정

(의료기기/화장품 박종현)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 91.7%	HOLD : 8.3%	SELL : 0.0%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